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추석 위령미사 신청

9월 8일(일) 주일에 추석 위령미사가 있습니다. 부모님, 가족 그리고 친지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레지오 평화의 모후 신임 단장

레지오 평화의 모후 신임 단장에 김영복 아나스타시아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단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정숙 이사벨라님은 서기로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사목회 모임

8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에 성당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과 각 부서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신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 제41차 남성 꾸르실료 교육

일시 : 10월 24일(목) - 27일(일)

장소 : 뉴턴 수도원

문의 : 신부님 혹은 윤모니카 회장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19년 성지 순례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장소 : 터키, 그리스 13일

날짜 : 9월 29일(일) - 10월 11일(금)

비용 : 3,195불 (필라델피아 출발)

문의 : 윤모니카 회장(254-289-1682)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이매향 도나타>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비오 구역 : 8월 25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 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 쾌유를 빕니다

지난 금요일에 수술을 받으신 이매향 도나타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알립니다!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사목회** 구역입니다.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틸다**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제노베파** 구역입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사목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259번 성모 승천
제1독서	예레미야서 38, 4-6. 8-10
화답송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2독서	히브리서 12, 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 루카 12, 49-53
봉헌성가	432번 주여 날 인도하소서
성체성가	156번 한 말씀만 하소서
퇴장성가	6번 찬미 노래 부르며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20주일 8월 18일	연중 제21주일 8월 25일	연중 제22주일 9월 1일
제1독서	권명자 올리안나	김정숙 이사벨라	김정숙 이사벨라
제2독서	황선동 스테파노	김희동 프란치스코	김희동 프란치스코
봉헌자	김영복, 오세환	권명자, 권선용	권명자, 권선용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앞두고 당신 마음의 내면을 관찰하도록 해 줍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성경에서 불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내면에서 깨끗하게 씻는 하느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 불은 벌써 땅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통해서 신자 공동체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이런 불의 시험을 겪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암시하시는 세례는 번민과 고난과 더할 수 없는 슬픔을 겪으신 뒤에 죽음에 잠기실 당신의 수난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러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얻는 그런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해 주는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불을 통한 정화, 빛과 어둠, 악과 불의, 억압과 무관심, 거짓과 불의한 상황에서 안락한 생활에 맞선 선의 싸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대립 상황은 모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과 일관되기를 바라는 모든 신자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유다교 회당이 나자렛 예수님을 하느님의 메시아로 고백한 모든 유다인에게 파문을 선언하였을 때(기원후 90년 얌니아 회의)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은 어떤 가족애와 물질 집착보다 하늘 나라의 가치를 첫자리로 놓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자세를 취하도록 제시합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우리들의 기도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주일정성

< 8월 11일(일) >

봉헌금	\$465.00	
교무금	\$500.00	임익철(1-5)
예물봉헌	\$105.00	
Total	\$1,070.00	